

법대 여학생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학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여성들이 법학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대 여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법대 여학생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학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여성들이 법학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대 여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법대 여학생들은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그러나 법학이라는 학문은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형성된 것으로, 여성들이 법학에 진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법대 여학생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이것이 법대 여학생들의 이야기 공간이다.



◆ 법대 여학생들의 이야기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에서 7대즐거운상상 여학생회는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4개월간의 활동으로 법대 여학우들과 많은 공감대를 가지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니 NO라는 명약관화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여성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했던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의 이야기를 펴내고자 합니다. 작은 소식지 '즐거운 상상'은 매월 한번씩 여러분을 찾아가 관계맺기를 하려고 합니다.

◆ 이번 소식지는 바로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외모 혹은 몸과 관련하여 여성들에게는 각기 다른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물론 이것이 여성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성에게는 필수 남성에게는 선택의 요건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외모의 포장 그리고 그것이 주는 사회적 효과와 재편되는 우리의 일상에 대해 여러분과 작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0. INTRO

외모, 포장, 상품, 이미지, 사랑, 존재...

#1

연인의 착각

누구나 감탄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호수에 나가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양치기 나르시스는 거리를 두고 그녀의 뒤를 따르다가 그녀가 떠나면 호숫가로 가서 그녀의 이미지를 찾곤 했다. 그러나 나르시스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 자신의 얼굴뿐이었다. 어느 날 나르시스가 호수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인이 돌아왔다.

"무얼 하는 거예요?"

"그대의 이미지를 찾고 있대요."

"나는 여기 땅위에 있답니다. 물 속에 있는 게 아니예요."

여인은 양치기를 보며 말을 이었다.

"자, 부끄러워하지 말고 내 얼굴을 쳐다보세요. 나, 여기 있대구요."

그러나 나르시스는 여인을 쳐다보지 않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대가 아니라 그대의 이미지라오."

- '신데렐라가 집을 나간 이유' 中

#2

... 사람들을 특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 시대의 유형에 달려있다. 1920년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톤톤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가 매력적이었다. 오늘날의 유형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양전한 여성상이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포장'이 되려면 남자는 공격적이고 야심적이어야 했으나 오늘날은 사교적이고 관대해야 한다.

... 내가 거래를 하러 나갔다고 하자. 상대는 사회적 가치기준에 비추어 바람직해야 하며 동시에 상대도 나의 명백한, 또는 숨겨진 재산과 능력을 고려한

다음 나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교환가치의 한계를 고려하면서, 서로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최상의 대상을 찾아냈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질 수 있다. 부동산을 사는 경우 앞으로는 개발될지 모르지만 현재는 숨겨진 가능성이 거래에서 대체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시장지향적이고 물질적 성공이 현저한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권에서 인간의 애정관계가 상품 및 노동시장을 지배하는 것과 동일한 교환 형식에 따르더라도 놀랄 이유는 하나도 없다.

-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발췌

#3

여우가 말했다.

"내 비밀은 이런거야. 매우 간단한 거지.

오로지 마음으로 보아야만 정확한 볼 수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 어린왕자 中

01 신입생이 되어 연세대에 다니게 되었다.

사회 계열에서 희망 단대를 법학으로 정하고 거의 1개월 가장 학교 생활을 했다. 처음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에 참가하면서 법대에 학생회와 여학생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왜 학생회가 두 군데로 나뉘어 있는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고 지금도 그리 바람직한 일로는 보이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 한 달의 짧은 학교 생활에서 내가 여자로서 남자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는 남학생들이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옆에서 그걸 보고만 있을 때 뿐이었다. 성장하면서 세상에 존재하는 차별들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의 학교 생활에서 남녀 차별을 절실히 느끼고 여성으로서의 권익을 보장받아야겠다는 것을 생각한 일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는 여성들은 약자이고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나는 여학생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하게 그 활동을 알고 있지는 않다. 단지 현재 약자이자 상대적으로 소수의 위치에 있는 여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이라 막연히 추측할 뿐이다. 나도 언제 마주치게 될 줄 모르는 부당한 차별들을 미리 알리고 견제하는 곳이고 언젠가 특별히 남녀의 평등을 거론할 필요가 없는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사라져도 될 곳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평소에 여학생회의 일에 아무런 참가도 하지 않은 채 어떠한 활동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감히 원하는 점이 있다면 여학생회가 우리들 가까이에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아무런 부담 없이 여학생들의 벗으로, 여성들만의 고민을 들어주는 상대로서 항상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지금도 여학생회에는 홈페이지도 있고 화정실 신문 등 우리 옆에 있기 위한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홈페이지도 그리 활성화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고 있다. 그것은 여학생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때 바로 여학생회가 생각 날 수 있도록 우리 곁에 있기 위한 노력만은 계속 해 주었으면 좋겠다.

0. 3월말 즐거운 상상은 과 사이에 있었던 인터뷰 내용입니다. 연세대내의 여성들과 이야기 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에서 여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에 대해 궁금해서였죠. 소식이 1호의 주인공은 사회학과 김현미 교수님입니다.

1. 여성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딸만 다섯 있는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 성장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여성 문화에 아주 익숙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나 언니들이 들던 가요나 판송을 따라 부르고, 언니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집에 와서 얘기하면서 함께 깔깔대고 물려다녔던 일들이 지금 생각해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성'은 저에게 긍정적인 힘이며 에너지로 인식되었지요. 그런데 나의 사적인 삶을 풍요롭게 했던 여성적 경험은 제가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는 10대 때부터 끊임없이 위협 당하고 무력화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여성 비하나 성희롱 등이 우리 사회에서 '정상적인' 문화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성들을 끊임없는 불안으로 몰아 넣고, 남성들을 전무한 '아저씨'들로 귀결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정말 저에게 비정상적인 것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러다가 미국에 유학을 가면서 페미니즘 관련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어떤 때는 책을 읽다가 너무나 좋은 구절이 나오면, 강독의 순간을 연장하기 위해, 책장도 못 넘겼지요. 무엇보다도 주위의 비아냥거림 없이 페미니즘 수업도 듣고, 토론도 할 수 있었던 환경을 가졌던 것이 행운이었지요.

2. 며칠 전 드라마 아줌마가 종영이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우연이 첫회부터 이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 그 후 끝날 때까지 정말 열광하게 시청했지요. 지식인들의 허상을 들춰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드라마 '최초로'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희망과 의지대로 삶을 살 수 있게 만든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니다. 그리고 오삼숙으로 나온 '아줌마'가 이혼 후에 식당에서 일하는 남성 동료와 좋은 감정을 갖게 되지만 그것을 결혼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끝낸 것도 기존의 드라마들이 보여준 상투적 결말에서 벗어난 점이었지요. 그런데 싱글 여자 교수로 나온 한지원이란 인물이 귀엽기는 하지만 너무 어리석

을 만큼 자기 중심적이거나 순진하게 그려진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지요, 사실 저도 싱글 여자 교수이기 때문에 한지원과 동일시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한지원이 조금 더 성숙한 인간으로 그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나라 대학 교수 중 극중에 나온 사람들처럼 '한가한'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21세기 후기 산업 사회에서 지식을 생산하고 전파하고 관리하는 교수들은 엄청난 노동 강도 하에서 '적시생산방식'에 의해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한지원처럼 멋진 루피스를 매일 갈아입고, 커피숍에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것은 상상도 못해요. 어떤 때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소파에서 자다가 아침에 깬 적도 꽤 많아요.

3. 여성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대체로 어떤지? 선생님이 보는 학생들에 대한 느낌은 어떤지?

흠, 여성학 관련 수업이 대형 강의이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으로 깊은 얘기를 나누거나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냥 느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학생들은 전보다 훨씬 덜 적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을 '모던 맨'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남학생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여성학 수업을 진지하게 듣고,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반박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학생들의 반응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학생들은 수업에서 조용한 편이에요. 저는 처음에 제 강의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가'하는 생각 때문에 좀 불편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여학생들은 내가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정교 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어떤 여학생들에게 '성별은 권력관계'라는 여성학의 주장이 자신을 피해자나 무기력한자로 위치짓기 때문에, 자신들이 지녔던 엘리트 의식에 상처를 준다고 불편해하지요. '보통' 여학생과 남학생들은 한창 연애나 로맨스에 대한 신화에 들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든 조화로운 남녀 관계가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명화의 메시지'로 수업을 끝내주기를 기대하지요. 저는 학생들이 대단한 페미니스트가 되기를 기대하지 않지만, 최소한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서 성숙해지고 성찰하는 능력을 길렀으면 해요.

4. 학내에 여성모임이 많이 생겼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학교마다 차이가 좀 있었겠지만 이런 모임이 거의 없었거

든요. 그래도 여학생들끼리는 참 친했던 것 같아요. 연세대 학내 여성 모임에 종종 '자치 모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때 좀 의아했거든요. 여성주의 모임은 언제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말이 필요 없었을 텐데, 아마 학교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직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겠지요. 학내 여성 모임에 대해선 적극 지지하고, 세포 분열 일으키듯 많은 수의 학생들이 모여들었으면 하지만, 요즘 참가하는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여성 모임들끼리 함께 모여 정보도 공유하고 '힘'도 과시하면서, 행복한 페미니스트들이 되었으면 해요.

5. 여성학에 관심 있는 모임, 혹은 새내기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 있다면?

여성학은 학문적 영역이고 그 인식론은 페미니즘이지요. 페미니즘은 여성의 언어이면서 또한 감성의 목소리지요. 그래서 이론서를 많이 읽는 것과 아울러 소설이나 영화 등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봐요. 여성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책방에 나가보면 정말 여성학 개론서나 입문서들이 많이 나와있는 걸 보실 거예요. <새여성학>이나 <일상의 여성학> 같은 책을 읽어보세요. 최근에 나온 책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똑같지도 다르지도 않은 이유>, 장필화의 <여성/몸/성>, <여성의 몸, 여성의 신비>등이 재미있고요. 수산나 타마로의 소설인 <러브>와 <마음 가는대로>, 엘프리데 엘리네크의 <피아노 치는 여자>, 알란 쿤데라의 <정체성>를 읽으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또한 제인 구달의 삶과 사상을 기록한 <희망의 이유>등도 감동을 많이 주리라 봅니다.

6. 여대생 실업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대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대학에서 여학생들이 갖추었으면 하는 점들은?

여학생들, 아니 우리 나라 관습은 여자들 모두 정말 좀 안됐어요. 능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무엇보다도 취업 준비도 성실히 하는데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는 직업을 못 잡고 좌절하는 것을 보면 정말 속이 곪지요. 말로는 '능력주의'가 주장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가 공적 영역의 남성 독점적 성향이 너무 강하잖아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한가지 부연하고 싶은 것은 여성들이 삶에 관해, 자기 자신에 관해 갖는 태도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최근에 개그우먼 이영자가 살을 빼고 예뻐졌다는 것이 연예계의 화제이다. 그리고 티브이에 비추어진 이영자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다. 시원스레 웃고 있던 그 입을 손으로 가리고 최대한 '여성스럽게'(여성스럽다고 말해지는) 웃고 살을 빼니 세상이 달라보인다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이영자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줄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미녀는 만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정말로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때문에...



이영자... 그녀는 정말로 예뻐졌다. 살을 빼고 예뻐졌다는 것이 연예계의 화제이다. 그리고 티브이에 비추어진 이영자는 이전과 180도 달라져 있다. 시원스레 웃고 있던 그 입을 손으로 가리고 최대한 '여성스럽게'(여성스럽다고 말해지는) 웃고 살을 빼니 세상이 달라보인다는 말을 서슴치 않는다. 그렇게 많이 달라진 이영자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다른 모양을 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줄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미녀는 만화에만 존재하는 것이 정말로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때문에...

#0. 들어가기

지난 3월 30일 11시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여학생 휴게실(학관 3층 휴여실 옆에 자리)에서 있었던 살물이(?)의 녹취기록이다. 많은 부분 생략이 있었지만 같이 얘기해보자.^^

#1. 살빼기=자신감의 원천

현정: 대학 1학년이 너무 재미가 없어 2학년이 되어서는 연극부에 들어가려고 했어. 그런데 연극 오디션에서 호감을 주려면 군살없는 몸매가 필요할 것 같더라구. 사실 많이 뺐 것도 아니야. 한 5kg쯤? 그런데 난 얼굴부터 빠지거든 그래서 학교에 왔는데 다들 "너 10kg쯤 뺐지?" 이러면서 놀래는거야. 그러면서 나를 보는 시선이 몰려졌어. 그전에는 그냥 귀여운 후배, 편한 사람이었다가 이전 살을 빼서 '사랑이 된' 나로 보더라구. 사실 후배를 대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작용한게 사실이구... (후략)

혜선: 어떤 식으로 하는게 다이어트나 하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하루에 얼마를 먹었고 그걸 얼마만큼 활동을 해야 살아 안까지 이렇게 감시하고... (중략)...

남자애들 같은 경우 먹는거 가리지 말고 평소대로 하라고 하면서도 막상 내가 앞장해져 오면 예쁘다고 평가하고 칭찬하고, 이런 말을 같은 사랑한테서 듣게되는. 기분이 묘한 경우가 있어요.

현정: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이성, 동성들 막론하고) 외모에 대해 하는 얘기가 많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 때문에 스스로 바꿀 수 밖에 없지. 수진: 저도 예전엔 신경쓰지 않았는데 애가 맨날 빼가 나왔네, 딸이 두껍네 하니까 정말 거울을 봐도 살펴보고 그걸더라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깐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후략)

#2.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치원: ...원빈 같은 경우 앞모습이 안 나오거든요('몸'이 없어서). 그것만 봐도 스타라는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진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적인 이상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남성적 이상형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혜선: 주위 남자애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애들이 많더라구요. 어깨가 좁고

그래서... 내가 내살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하면 개네는 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다고 남자로서의 멋있는 몸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여자건 남자건 체질이 다르고 체형이 다른데 한가지가 전형적인 것이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게 되는거죠. 참...

수진: 여자들한테 그런게 심했잖아요. 근데 소비영역이 줄어들면서 남자들한테까지 그걸 늘리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후략)

#3. 여자와 남자의 차이

혜선: 아마 365일 내내 다이어트를 해야될거예요. 저는, 그래야 주위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자기관리 한다고 하니까.

치원: 여자들 같은 경우 살이 찘으면 자기관리를 소홀히 했다가 나태하다 성격이 이상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반면 남자들 같은 '살이 많은 체질'이라고 하죠. 여자들은 허용이 안 되고...(후략)

#4. 이상형, 연예인, 메스컴의 위력(危力)

수진: 옥주현 같은 경우 참 불쌍해요...

현정: 인터뷰할 때 다른 멤버들은 다 외모얘기를 하는데 옥주현은 '화면이 잘 안 나와서 속상해요.'라고 하더라고요...(중략)...연예인들은 또 이상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러니까 서로 상대만을 쳐다본다는 거지.

혜선: 요즘 SBS에서 '성형수술'에 대해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한 사람을 찍어서 개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건데. 웃기는건 이휘재(평소엔 외모만 밝히는 그 이휘재)가 그걸 만류한다는 거죠. 프로그램의 취지로 보면 이런 애가 수술해서 이렇게 바뀌었다 뭐 변한 이야기인데. 방송은 이미 활개치기 시작한거면서.

수진: 예전에는 이소라가 되게 당당해 보였거든요. 운동도 계속 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많은 여성들을 현혹하는 거지. 자기가 예쁘고 그러니까. 그래서 자꾸 뭘 하라고 하고.

혜선: 조혜련도 되게 당당한데 그 중 50%는 외모 때문에 그런거 같아요...(후략)

#6. 어떻게 하면 좋을까?

치원: 항상 이런 얘기하면 외모나 그런 것들이 '억압'이라면 그에 맞서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죠.

혜선: 맞아요. 맞서면 자기만 손해라고...

수진: 책에도 나오잖아요. 이대에서 처음엔 맞서다가 일단 그대로 하니까 너무 편했다고.

현정: 전에 TV에서 여성 시민 운동가가 나왔다. 근데 화장을 안 했어. 그러니까 내 친구가 그걸보고 뭐라고 하는거야. 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지만. 생각해 보면 남성 운동가들에겐 그런 말을 안 하지...(후략)-일동 한숨?

#7. 연대에서

혜선: 고등학교 때만 해도 반에 되게 뚱뚱한 애들이 몇 명 있었는데 대학오니까 안 그래요. 갈수록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쁘기도 한 거 같고.

현정: 그러니까 자기를 가꿀 줄 아는 사람이 공부도 잘 한다는 인식이 퍼진 거 같애. 예전에는 백치이다 뭐다 했는데 요즘에는 지적인 이미지와 미적인 이미지가 결합하는 추세인 것 같아...(중략)...우리가 한 얘기가 연대라서 그런 면은 없나 궁금하거든.

...Tape공감(...m^O^m...)

#8. 나오기

얘기하면서 서로 느낀 '공감대'의 끈은 상당한 것이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그 끈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리고 여기저기 널부러져 있는 조각난 끈들이 보이는 것은 또 왜일까??? 이제 우리 서로 끈을 엮어 튼튼한 동아줄을 만들 때는 아닌지... 아니 그래야만 하는 것이겠지!

※백래터는 매 소식지의 테마를 주제로 자유로이 이야기하고 이것을 녹취하여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많은 참가 바랍니다.

<나? 이대다니다, 왜!?>

이화여대 신방과 97학번 노혜영

"학교가 어디시라고요?" / "이대다니는데요." / "아..이대요...?"

입 끝을 약간 올리면서 웃음짓는, 하지만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 보이는 웃음. 그 사람의 표정은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었다. 이대에 다닌다고 하면 남자들이, 아니 사람들이 흔히 보일 수 있는 그런 표정이었다. 내가 우리 학교에 다닌지 5년이 되어가면서 수도 없이 보아야 했던 그 표정을, 난 그런 표정이 싫다.

나의 모교, 이화여대는 유난히 소문이 많다. 소문이라기 보다는 하나의 편견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르는 그 편견들. 그것들은 아주 자주 나를 비롯한 이대생들을 자극한다.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조차 가끔 그런 얘기들을 나에게 한다. 그 앞에서는 웃고 넘어가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답답하다. 대체 어디서 그런 소문이 흘러나왔는지.. 게다가 그 편견들은 성급한 일반화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사람들은 이대생들은 화장만 하고, 사치스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한다. 물론 이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잠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디에나 그런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다 관심가지는 부분이 다른 법이니까. 남녀 공학의 대학에서도 주된 관심사가 화장이며, 못 입는 것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실제로 여학생들의 비율을 살펴본다면 이대생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여자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멋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다. 특별히, 이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대라는 분위기가 그런 것들을 조성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학교에 들어와서 학생들을 유심히 본다면 이러한 사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화장을 많이 하고 사치스러운 사람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한 말이 돌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예쁘고 화려한 여학생들도 많이 있지만, 공부 외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학생들, 그리고 평범하고 수수한 학생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이대이다.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이대생들은 모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주 눈에 띈다. 이대생들은 남자들에게 괜히 공격적이고, 적대적이며, 자신들의 주장을 목소리 높여서 얘기한다고 알려져 있으나보다, 실제로 어떤 술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대생들은 남자인 친구들에게 술을 따르는 것도 싫어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견해의 차이이지 학교에서 길러진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화여대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대학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많은 여성인물들을 배출해 왔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학문이 최초로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대생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또한 여성학이라는 학문을 최초로 학문으로 받아들이고 활성화시킨 것이 이대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그러한 토론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대에 다니면서 교양과목으로 여성학 관련 과목을 쉽게 수강할 수 있고, 그러한 의식들을 배워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학생 개개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대가 페미니스트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전까지 체계화되지 못했던 지식들이 대학에 와서 구체적인 지식으로 굳어져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전까지 배우지 못했던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대학이라는 학문의 장에서 당연히 벌어져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원해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화여대도 평범한 대학이다. 남녀공학과 다른 것은 여자들만 다니는 대학이라는 것 뿐이다. 여자들만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보기에는 약간 폐쇄적이고 뭔가 신비한 것이 있을 것 같은 환상의 공간으로 비춰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다른 것은 하나도 없다. 이대에서도 일반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며, 학생들은 별다른 것 없이 학교 생활을 해 나간다. 여대에, 특히 이대에 다닌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고, 목소리 높이고 다닐 필요도 없다. 대학 안에서 학문이 이루어지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이대를 여대가 아니라 하나의 평범한 대학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졸업할 앞둔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반성폭력 학칙) 시행세칙 확정

지난 2000년 10월 10일 제정되었던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반성폭력 학칙)의 시행세칙이 2001년 3월 16일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시행세칙은 학교측의 가안과 학생들의 수정안을 놓고 협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이번에 확정된 시행세칙은 교수(시간강사 포함), 교직원, 학생을 포함한 우리 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학내에서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학생처 내의 성폭력 상담실에 상담을 의뢰하거나 총여학생회, 법대 여학생회 등에 신고하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세칙이 확정됨으로써 그 동안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성폭력 사건의 해결과 학내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도록 모든 구성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은 총여학생회 홈페이지에 가연 보실 수 있습니다.(<http://ysfem.or.kr>)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서울여성영화제가 1997년 1회 개최 이후 3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는 비경쟁·국제영화제이면서 일부 경쟁을 도입한 영화제로, 여성의 시각에서 다룬 영화를 상영합니다.

- 개최기간 : 2001년 4월 15일 ~ 22일
- 상영관 : 동송아트센터 동송홀/하이퍼텍 나다
- 관람료 : 4,000원 (개폐막식 7,000원/심야상영 10,000원)
- 예매 : 4월 1일부터 가능
- 인터넷예매 : 제3회 서울여성영화제 (www.wffis.or.kr)
티켓링크 (www.ticketlink.co.kr)
- 전화예매 : 1588-7890
- 현장예매 : 영화제 기간중 오전 11시 - 오후 6시 (현장예매는 영화제기간동안 가능합니다.)

◎ 국가고시동 기숙사 대학별 배정 인원

◎배정기준: 고시동(4학사 A동) 2층을 여학생층(58명 정원)으로 배정

○남: 3,4,5층(174명)/여: 1,2층(102명)

◎적용시기: 2001년 9월부터 적용

구분	변경배정인원		배정인원(현재)	
	남	여	남	여
상경대	42	22	51	9
공과대	26	6	35	3
사과대	41	16	46	12
법과대	53	48	84	14
교과대	6	3	8	2
문과대	6	7	8	4
총계	174	102	232	44

*법대는 일부 고시 준비생은 법문학사(법과대학 소속) 거주

◎ 여학생회 소식지 발간 축하 메세지입니다!!

법대 여학생회가 법대의 중심에 우뚝서게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으로 POWER를 발산할 수 있는 건강한 소식지가 될것이라 믿습니다. 축하해요 -졸업생

사람으로 살아가기도 힘들지만 여자로 살아가기는 더 힘들다는 걸 깨달았을 때 새로 태어나는 느낌이였다. 법대 여학생회의 소식지가 이런 여학생들의 제2의 탄생을 지켜봐주고 같이 고민해주는 길벗이 되어주길..멋진 여자들 화이팅!! -96 김민정

우선 법현학사랑 고시 기숙사에 여학생들이 갈 공간이 너무 없어요. 그리구 백양관에 여학생 쉴 곳도 너무 없구요 .여학생 휴게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변에 자판기 옆에 조그만 소파가 있었을 땐 그나마 좋았거든요. 소식지 자알 만드시길... -99 박지현

그리고 많은 분들...(?)